

수도용 약간 **늘고** 원예용·제초제 현저히 **줄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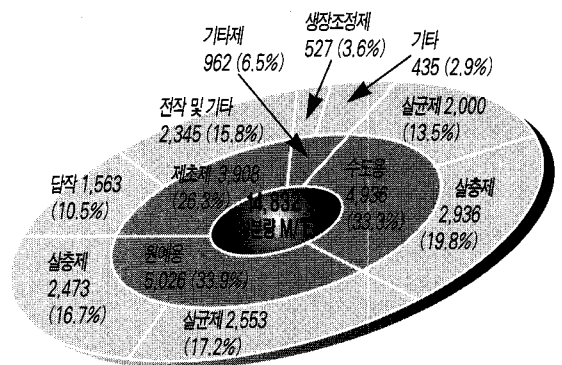
업무부

9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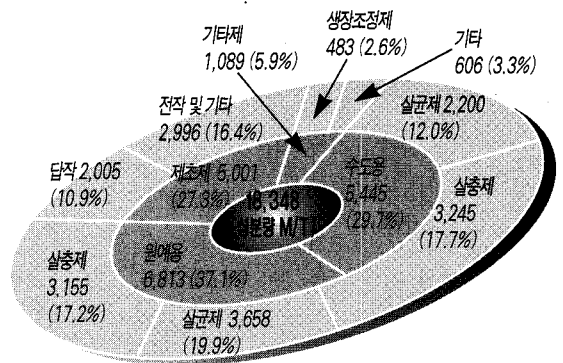
년도 상반기 농약 생산·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%, 10%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농약공업협회가 잠정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농약생산량은 1만4천8백32톤으로써 97년도 생산량 2만5천3백톤의 58.6% 수준이며 전년 동기대비로는 82.8% 정도를 생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다른 생산현황을 보였다. 작물별로는 유일하게 수도용 농약만이 4천9백36톤으로써 동기대비 14.6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기온에 따른 병해충 발생양상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반면 원예용 농약은 5천26톤으로써 전년동기대비 31.4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7.8%였던 전년보다 감소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제초제 역시 3천9백8톤으로써 전년동기 4천8백39톤에 비해 19.2%나 감소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. 성장조정제 및 기타제는 9백62톤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무려 33.7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올해 상반기 농약출하량은 전년도 출하량인 2만4천8백14톤의 59.8% 수준인 1만8천3백4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0.6% 정도로써 생산량보다는 다소 늘어난 출하양상을 보



〈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〉



〈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〉

여주고 있다.

작물별로는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수도용만이 13.6% 증가한 5천4백45톤으로 나타났을 뿐 원예용은 18.9%, 제초제는 10.9%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**농약정보**